

# 언론 사람

**08**  
2020  
VOL.242



**04** 인터뷰 人+人  
영화감독 봉수

**06** Newmedia of the World  
객관 저널리즘 논쟁과  
'기레기'

**10** 돌보기  
명철보신의 지혜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포기를 모르는 그녀, 세상을 바꾸다  
세인트 주디

<b>04</b>	<b>인터뷰 人+人</b> 영화감독 봉수	<b>12</b>	<b>이달의 시</b> 산들이 창조한 감동과 영원의 풍경
<b>06</b>	<b>Newmedia of the World</b> 객관 저널리즘 논쟁과 '기레기'	<b>14</b>	<b>단어의 중력</b> 행복
<b>08</b>	<b>세상사는 法</b> 성범죄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b>16</b>	<b>내 마음의 활동사진</b> 포기를 모르는 그녀, 세상을 바꾸다 세인트 주디
<b>10</b>	<b>돋보기</b> 명철보신의 지혜	<b>18</b>	<b>NEWS</b> 위원회 뉴스 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8월 3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Oleksandr  
<Yellow sunflowers grow on the field>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  
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  
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바다를 향해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요?  
한적한 제주도의 여름 바다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눈이 부시도록 파란 하늘과  
그보다 더 파란 바다가 만들어내는 푸르름은  
인공의 열기에 지친 우리에게 삶의 심표를 선사합니다.  
8월, 뜨거운 도시를 떠나  
잠시 쉬어 가는 것은 어떨까요?

# 진실은 관심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독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말과 주장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진실의 정체 앞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독립영화로 돌아온 봉수 감독의 시선을 따라 짚어 보았다.



영화감독  
봉수



Q 제25회 춘사영화제 독립영화 부문 특별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의 복귀작인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A <마음이>와 <하늘과 바다>를 찍고 슬럼프를 겪었어요. 영화계를 떠나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살아있다는 감각으로부터도 멀어지더라고요. 다른 감독님들 작품에서 각본을 쓰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독립영화로 관객들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해요. 또 이번에 <구라, 베토벤>으로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늦어졌지만, 8월 개봉을 목표로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Q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설명이 눈에 띕니다.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를 택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일본에 베토벤이라고 불린 천재 작곡가가 실은 대리 작곡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각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20년 만에 밝혀진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영감을 받아 살인 유력 용의자로 의심받고 도망자가 된 유명 영화감독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거장이라 평가받던 주인공은 쫓기게 되면서 조감독의 이름을 빌려 작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의 흥행으로 조감독이 명성을 쌓아 나가면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지만, 조감독

을 조종하고 진실을 조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주인공과 그에게 반격하는 인물들의 한바탕 소동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화적 장치는 경쟁적으로 특종을 보도하는 언론이네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화에서 진실을 조작해 '구라'를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언론이라 할 수 있겠네요.

### Q 진실과 거짓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진실의 상대성에 대한 감독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 제가 보기에 거짓과 진실은 생명체 같습니다. 고정되지 않고 외부 요인에 의해 유연하게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진실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물고 진실의 가치를 빼앗는 힘을 가지기 때문이죠. 최근 이슈가 된 고 최수현 선수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최 선수가 생전에 겪은 부당함이 진실로서 존재했다라도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진실이 거짓으로 남았겠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처음부터 최 선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진실이 진실로서 제때 부각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 Q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조작정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거짓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A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게 되면 거대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공통된 진실에 바탕을 두고 신념에 대해 논하기도 전에,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정보를 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만 남는 거죠. 정보가 흘러넘치는 지금, 개개인이 모든 정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능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론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는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Q 촬영기간이 코로나19의 유행과 겹쳐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계에서는 '언택트(Untact) 시대'에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요?

A 지금이 오히려 독립영화인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독립영화

는 대형 영화관에서는 상영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에서 소비자들은 영화관보다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같은 OTT를 더욱 많이 이용합니다. OTT는 대부분 월정액 구독 형태를 취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배우의 명성이나 영화의 규모보다는 스토리가 신선한지, 자신의 취향에 맞는지 좀 더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의 시각과 역량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독립영화가 신선한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미디어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독립영화가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기회가 올 수 있죠.

### Q 지난 6월 강아지를 학대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가 인간에 대한 존중 결여로 이어진다는 취지였는데요. 전작 <마음이>에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반려견 간의 사랑을 그려낸 감독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A 사회든, 영상이든 지나치게 잔인해진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동물 학대나 N번방 같은 비윤리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약자의 고통이 외면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동물 학대를 사회적 약자 보호의 관점으로 본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할 때 우리가 만들어 온 사회적 가치 체계가 복구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도 예방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성문을 쓴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하지만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모두와 공유하고 싶어요. 그런 가치를 이야기로 녹여냈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 Q 감독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차기작을 구상 중이신가요?

A 인간의 기억에 관한 독립 영화를 준비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진정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음에도 모두가 기억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음에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착안하여 지하철역 벤치 앞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에 엮인 기억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각본을 작업 중에 있고요. 또한 <마음이>의 연장선인 반려견에 관한 장편 영화도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객관 저널리즘 논쟁과 ‘기레기’

‘객관’은 이상적 상태다. 도달하기 어려울뿐더러 근접조차 버겁다. 그래서 객관은 이데아이며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만 존재할 뿐이다. 객관에 저널리즘이 덧붙여진 객관 저널리즘 또한 이상을 좇는 저널리즘의 현실적 실천 방안, 윤리 규범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6년 풀리처상 수상자 웨슬리 로워리(Wesley Lowery)의 6월 23일 자 뉴욕타임스 칼럼\*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에서 드러난 객관 저널리즘의 명백하고도 본질적인 한계를 짚었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다.

“수십 년 전 미국 저널리즘이 공공연한 당파적 언론에서 객관성을 공언하는 모델로 전환한 이후, 주류는 객관적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백인 기자와 그들의 대부분 백인 상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한 선택적 진리는 백인 독자의 감성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교정돼 왔다.”

웨슬리는 워싱턴포스트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공권력(Fatal Force)’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경찰에 의한 총기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던 당사자이자 촉망받는 젊은 흑인 언론인이다. 그는 이 프로젝트로 풀리처상 수상뿐 아니라 미 법무부의 관련 데이터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했다.

흑인 사회와 저널리즘 생태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이번 칼럼의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The Elements of Journalism)’을 썼던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이 곧장 트위터로 반박했다. “잘못 이해된 객관성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주관성을 채택하면 마법처럼 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고는 오해”라고 했다. 웨슬리가 대안으로 언급한 ‘도덕적 명확성(Moral Clarity)’도 비판하며, 주관으로의 회귀는 “비극적일 것”이라고 했다. 공공 저널리즘의 석학 제이 로젠(Jay Rosen) 뉴욕대 교수는 재반박을 펼치며 객관 저널리즘의 본질 논쟁을 더 큰 범위로 확장시켰다.

20세기 초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이 정초하고 기자의 직업적, 윤리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접 학문 영역에서 빌려온 객관 저널리즘은 이렇듯 한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수많은 비판에 노출돼 있다. 객관보다는 공정을 가치 중심에 뒀야 한다는 대안적 논의부터 탈객관주의, 프래그머티즘 담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적 논쟁도 전개됐다. 하지만 신화가 되어버린 ‘객관 저널리즘’은 취재 현장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객관 저널리즘 논쟁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 특히 국내에서 개선의 결절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경은 그릇된 방식으

\*<https://www.nytimes.com/2020/06/23/opinion/objectivity-black-journalists-coronavirus.html>

로 받아들인 객관 저널리즘을 국내 언론사들이 지고지순의 원칙처럼 고수하고 있어서다. 1960년대 개념 수용 과정에서 객관 저널리즘을 비틀리게 정의했고, 중립으로 재포장한 뒤 보도 원칙으로 굳혀버린 탓이다.

객관과 팩트라는 이름으로 무주체 피동형 문장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따옴표 제목을 남발하며, 익명 취재원을 여전히 거리낌 없이 등장시킨다. 그리고도 객관 저널리즘을 지향한다는 가치를 내세우며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미국의 이번 객관 저널리즘 논쟁이 기자로부터 촉발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적지 않다. 객관 저널리즘에 대한 본질 논쟁은 국내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진행된 적이 있지만 늘상 현장과 유리된 채 공명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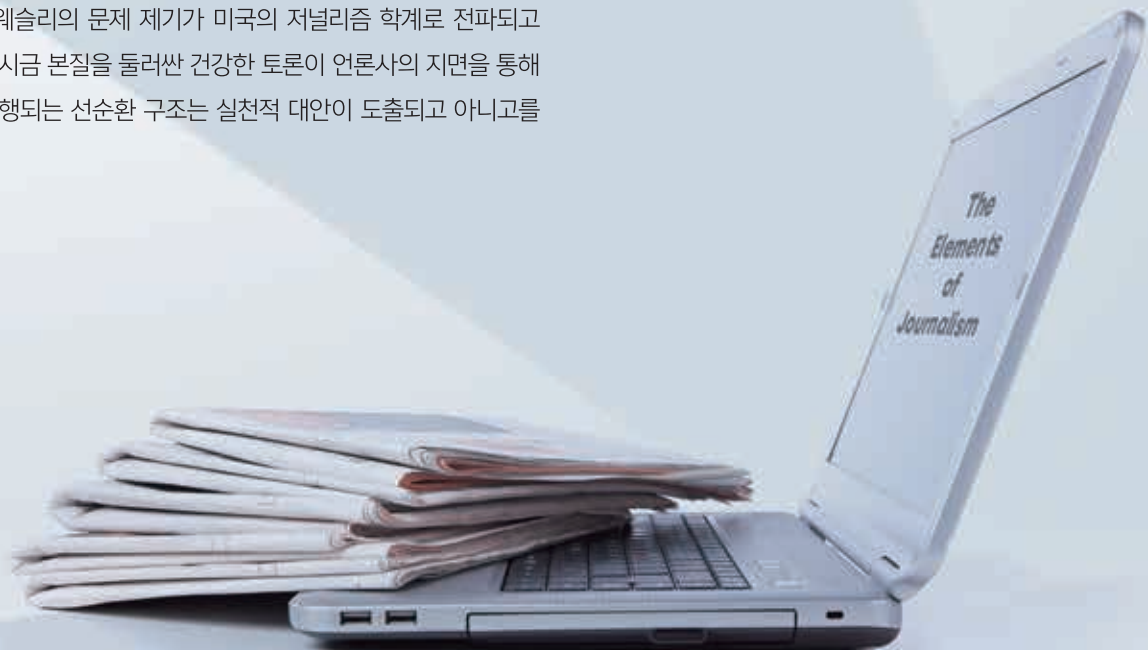
빈곤한 저널리즘 철학에 기초해 일상의 보도 행위를 영위하는 언론사들은 객관 저널리즘의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경주하지 않았다. 연구자와 기자 간의 오래된 불신, 대화의 단절, 교류의 중단은 결과적으로 저널리즘 자체에 대한 신뢰의 추락과 대안 모색의 소극성이라는 결과를 낳아왔다.

웨슬리의 문제 제기가 미국의 저널리즘 학계로 전파되고 다시금 본질을 둘러싼 건강한 토론이 언론사의 지면을 통해 진행되는 선순환 구조는 실천적 대안이 도출되고 아니고를

떠나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저널리즘의 본질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위의 근본을 묻는 질문을 터뜨리며, 저널리즘이 나아갈 바를 다시금 모색케 하는 생산적 공론 형성의 포럼이 될 수 있어서다.

아직 국내 기자들 다수는 객관 저널리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견해조차 내놓지 않는다. 연차 높은 데스크들은 중립, 균형 등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연결 고리, 여기에 실증적 과학주의가 왜 도입됐는지 이해하는 현장 기자는 많지 않다. 직업인으로 변모해 가는 기자라는 직종의 고된 현실 앞에서 저널리즘의 근본을 되묻는 질문은 한가로운 어떤 것쯤으로 치부된다.

기레기, 기더기 따위의 경멸하는 명칭은 기자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 규범, 실천 체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선언하며 실현할 때 비로소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본질을 묻는 문화 자체가 사멸해가고 있는 한국의 뉴스룸에서 그날을 기약할 수 있을지 종종 회의를 느끼게 된다.





# 성범죄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3선 서울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졌는데, 이에 대해 고인의 사회적 업적을 생각할 때 합당한 추모라는 측과 죽음은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이었으므로 국가적인 추모는 불필요하다는 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많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2020년 7월 13일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1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이 밝힌 내용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하여 음란한 문자 및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 등으로, 기자회견장에서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해 핸드폰 캡처 화면을 제시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사진과 문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증거가 있으면 더 제시해야 한다. 비서가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고, 비서의 신원을 알아내겠다는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되었다. 또 '4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라는 한 아나운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공과 과에 대해 나는 글로 쓸 만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 보도 지침을 통해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은 성폭력 범죄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정하

## 성범죄 보도에서 제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지침은 '피해자 보호'인 것은 분명하다

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선정적 제목을 사용한 경우나 가해 행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한 기사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노래방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담은 CCTV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보도(제2019-1051호),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한 기사(제2018-383호), 기사 제목을 “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맞은 어때냐?” 000,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라고 한 기사(제2018-379호) 등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성범죄 보도를 가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묘사하게 되면 피해자를 그러한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연상하고 인식하도록 만들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재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이 계속 언론에서 상세하고 선정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그는 이러한 보도로 야기되는 2차 피해에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사 중에는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소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들도 있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라면 언론은 이를 얼마든지 그대로 보도해도 무방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은 성범죄 보도가 단지 자극적인 가십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공개의 내용과 수위를 고민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대중들은 ‘선정적인, 믿기 어려운 사실관계’에 분노하고 클릭할 것이지만, 대관절 그것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란 말인가.

언론이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완전한’ 자유가 부여되도록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중에 대한 공개 결정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형사 고소와는 다르다). 설령 피해자가 범죄 내용을 다수에게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

의 신상을 비밀로 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것이 행어 그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추정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두고 제3자가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한 잘못된 고정관념 중 하나는 성범죄 피해자가 ‘수차례 성범죄 피해를 겪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 아닌가?’ 혹은 ‘이미 오래전 일을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는 시선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범죄 사건 보도마다 되풀이되어 망령처럼 나타난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보도 당시에도 앵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라고 질문했다. 피해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바로 답했지만, 이런 식의 질문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더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아나운서처럼) ‘대체 몇 년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제라도 털고 일어나줘서 다행이다’라고 위로를 하지, ‘지금까지 침묵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는가’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무고죄’가 있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을 응원했던 사람들의 걱정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다행히(?) 피소사실 유출과 성범죄 공모 범행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한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든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성범죄 보도에서 제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지침은 ‘피해자 보호’인 것은 분명하다.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2018), <성폭력, 성희롱사건,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60면



# 명철보신의 지혜

<영회시(詠懷詩)> 회포를 읊은 시

삼국 위(魏) 완적(阮籍, 210~263)

昔聞東陵瓜, 석문동릉과  
 예전에 들으니 동릉후의 참외밭은

近在青門外, 근재청문의  
 청문 밖 가까이에 있었다네.

連畛距阡陌, 연진거천맥  
 이어진 밭두렁에서 가로 세로의 길로 번어

子母相拘帶, 자모상구대  
 크고 작은 참외들이 함께 달렸다.

五色曜朝日, 오색오조일  
 오색으로 아침 해에 반짝이니

嘉賓四面會, 가빈사면회  
 좋은 손님들이 사방에서 모였다.

膏火自煎熬, 고화자전오  
 등불의 기름이 자신을 태워 버리듯

多財爲患害, 다재위환해  
 많은 재물은 근심과 재앙이 된다.

布衣可終身, 포의가종신  
 베옷으로 생을 마칠 만하니

寵祿豈足賴, 총록기족뢰  
 총애와 녹봉이 어찌 믿을 만하리오.

**동릉과(東陵瓜)** : 소평(召平)은 진(秦)나라 때 동릉후(東陵侯)를 지냈다. 진이 망하고 평민이 되어 가난해지자 장안성 동쪽에서 참외를 길러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청문(青門)** : 한(漢)나라 장안성 동쪽의 성문이다.

**천맥(阡陌)** : 밭 사이에 세로로 난 길이 천(阡)이고 가로로 난 길이 맥(陌)이다.

완적은 삼국 시기 위나라 시인으로,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이다. 위나라는 조씨(曹氏)와 사마씨(司馬氏) 간의 권력 투쟁이 극심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사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죽림칠현은 이런 혼란 중에서 느끼는 위기의식과 현실에 대한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 술에 의탁한 채 방종을 일삼았다. 대표적 인물이 완적과 혜강(嵇康)이다. 그들은 노장사상을 추구하면서 내적 갈등을 시문으로 표현했다. 완적의 <영회시> 82수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작품이다. 그는 시에 철학적 사고를 도입해 예술 기법과 결합함으로써 중국 고대 서정시의 경지를 높였다.

시의 전반부 여섯 구절은 소평이 전날의 영화에 구애되지 않고 소박한 농부로서 안분지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동릉후로 부귀를 누렸지만 영락하자 참외를 기르면서 진한(秦漢) 교체의 혼란기를 잘 넘겼다. 상황에 따른 그의 적절한 처신은 지혜의 한 전형으로 전해진다.

이어지는 후반부의 네 구절이 이 시의 요지이다. 벼슬길에 나섰다 화를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느낀 공포와 실의를, 《장자》와 《사호가(四皓歌)》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고화자전오(膏火自煎熬)’는 《장자·인간세(人間世)》에 나오는 구절이다.

(설모 때문에) 산의 나무는 스스로를 해치고, 등불의 기름은 스스로를 태운다. 계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서 베이고 뽕나무는 쓸 수 있어서 잘린다. 사람들은 모두 ‘설모 있음의 설모’만 알고 ‘설모없음의 설모’를 알지 못한다.(山木自寇也, 膏火自煎也. 桂可食, 故伐之, 漆可用, 故割之. 人皆知有用之用, 而莫知無用之用也.)

설모가 있어 피해를 당하는 예들을 들어, ‘설모없음의 설모[무용지용(無用之用)]’를 제시했다. 사람들은 설모 있는 존재가 되어 명예와 부귀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한다. ‘설모없음의 설모’가 ‘큰 설모[대용(大用)]’이니, 삶을 온전하게 하는 길이라는 가르침이다.

‘다재위환해(多財爲患害)’는 진시황의 폭정으로 상산(商山)

에 은거했던 네 노인[사호(四皓)]이 지은 《사호가》의 내용을 빌린 것이다. 후반부만 인용한다.

唐虞世遠, 요순시대 멀어졌으니  
吾將何歸.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가야 하나.  
駟馬高蓋, 네 마리 말이 끄는 높은 수레 탄 이들이여  
其憂甚大. 그 근심이 매우 크다.  
富貴之畏人兮, 부귀하면서 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不若貧賤之肆志. 가난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으니.

요순시대와 대비해 현실의 혼란을 비판하고, 부귀로 초래되는 근심을 지적했다. 재능과 부귀는 자칫하면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 혼란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니, 물러남이 화를 피하는 최선책이다. 《중용·제27장》에서,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그 말이 자신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그 침묵이 자신을 용납되게 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밝고도 지혜로워 자신을 보존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것을 일컫는 것이리라(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默足以容, 詩曰, 既明且哲, 以保其身, 其此之謂與.)”라고 하여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무도한 세상에서는 침묵이 지혜로운 처신임을 강조한 것이다.

장자도 다음과 같이 ‘명철보신’의 이치를 일깨웠다. “나섬에 감히 앞이 되지 않고 물러섬에 감히 뒤가 되지 않으며, 먹음에 감히 먼저 맛보지 않고 그 나머지를 취한다. 이 때문에 그 무리가 배척하지 않고 남들이 끝내 해칠 수 없으니, 이로써 재앙을 면한다. 곧은 나무는 먼저 베어지고 맛 좋은 우물은 먼저 마른다.”(進不敢爲前, 退不敢爲後, 食不敢先嘗, 必取其緒. 是故其行列不斥, 而外人卒不得害, 是以免於患. 直木先伐, 甘井先竭.) [(산목(山木))]

남보다 앞서거나 재능을 드러내면 시기와 음해를 당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상례이다. 이를 알고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명철보신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혼란한 시대에 침묵과 물러남을 선택하였다. 완적의 영회시는 평범한 언어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바로 난세에 화를 당하지 않았던 그의 처세 철학이다.

# 산들이 창조한 감동과 영원의 풍경

지구라는 행성에서 산들은 단연 돋보입니다. 높이도, 넓이도, 부피도 못 생명들의 마음을 주저 없이 열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산의 높이 앞에서 신성성을 느끼고, 그 넓이 앞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그 부피감 앞에서 너그러움을 배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산을 찾아가합니다. 그러나 전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인 한국 땅에서 산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만나고 볼 수 있는 이웃들과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이 되어 산을 찾아 떠납니다. 산에 대한 외경심과 그리움, 그리고 그와 같은 산들과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간절한 속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산과 인간의 만남은 길고 수준 높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과 인간 사이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언어와 담화들은 무척이나 많고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산을 찾아가서 두 발로 산정을 향해 오르는 것을 사람들은 등산(登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자기성장과 즐거움에 대한 의욕과 의지가 담긴 근대적인 용어이지요. 그러나 이런 근대적인 산행의 언어 이외에도 심신의 고쳐에서 산과 노닐며 공부한다는 뜻의 유산(遊山), 그런 산으로 수행자의 초탈한 마음이 되어 들어간다는 입산(入山), 그리고 그런 산을 우주법계의 한 차원으로 공경하며 사랑한다는 요산(樂山)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불가의 대승경전인 <화엄경>의 서두에서 이런 산들을 불러내어 세상의 진리를 장엄하는 '주산신(主山神)'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은 이렇듯 물리적 세계를 넘어선 인간사적, 문화사적 의미를 크게 지닌 존재입니다. 이런 산의 의미화와 문화화에 앞장선 장르로서 당연히 예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달에 함께 읽어보는 홍사성 시인(1951~ )의 작품 <산이 산에게>도 이런 예술사적 맥락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산은 예술사적 맥락 너머의 지혜사의 흐름 위까지도 놓아 볼 수 있는 면모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이 산에게>에서 산은 시인에게 예술서이자 지혜의 산경(山經)과도 같습니다. 그는 산이라는 텍스트에서 순리로 밝혀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조화경으로 통일되는 감동을 느끼며, 부동심으로 영원을 사는 지혜의

길을 봅니다. 홍사성 시인에게 이런 산은 부박한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자 그 현실로 되돌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산들과 만나고 있는지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산이란 하나의 물질이자 자연물이고 지리적 세계에 불과하지만 그 산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산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산은 인간 생존에 이로운 존재였던 것이지요. 생존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데도 만족스러웠던 것이지요. 홍사성 시인의 시 속에 표현된 산의 모습도 이런 호의적인 해석학적 맥락 위에 있습니다.

<산이 산에게>의 앞부분에서 시인은 작은 산과 큰 산이 서로 기대고 품어 안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른바 '상의상존(相依相存)'하는 산들의 존재 방식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시의 중간 부분에서 작은 산과 큰 산이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감의 세계를 그립니다. 산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작품의 끝부분에서 작은 산과 큰 산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간과 언어를 넘어서서 온전한 풍경으로 영원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산이 지닌 무위성과 항상성의 미덕을 본 것입니다.

산은 이렇게 시인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숭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인 또한 그런 산으로 인해 숭고한 시간 속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세계의 호혜적인 공명현상을 공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 산이 산에게

홍사성

큰 산  
작은 산이  
어깨 곁고 살고 있다  
작은 산은 큰 산을 병풍으로 두르고  
큰 산은 너른 품으로 작은 산을 안고

꽃필 때면  
큰 산이 작은 산에게 먼저  
단풍들 때면  
작은 산이 큰 산에게 먼저  
애썼다 수고했다고 말없이 위로하며

언제나 그 자리에서  
천만년 그렇게  
큰 산은 큰 산대로  
작은 산은 작은 산대로  
그윽한 얼굴로 오래, 서로 오래 바라보며

- 《시와 시학》 2020년 여름호



# 행복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행복이란 '1. 복된 좋은 운수, 2.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너는 고개를 가우뚱하고 '행복'이란 글자를 들여다본다. 쉽고 흔한 단어를 무심코 사용하다가 불현듯 의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문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 네 모니터에 사전창이 항상 열려 있는 건 그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대체로 그 안에 없다.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던 단어는 내가 의심을 품는 순간 벌써 개념이 되어, 울퉁불퉁해 지고 조각나고 뿌여진다.

행복이란 단어를 풀이하는 저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는 또 무엇일까. 만족은 무엇이고 기쁨은 무엇이며 좋은 것은 무엇이고 충분하다는 건 또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들의 의미를 새삼 찾아보다가 결국 단어 속에서 길을 잃고 만다. 글을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온 지 이십 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태 너는 그런 형편이다.

너는 단어의 미로를 헤치고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다. 무언가 구체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희미해진 풍경들 안에서 너는 겨우 하나의 얼굴을 찾아낸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너는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해 겨울, 너는 흑한을 벗어나 적도 가까운 곳으로, 철새처럼 날아갔다. 방콕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나 소란한 도시는 너를 금세 지치게 했다. 다음날 찾아간 파타야도 관광객으로 들끓었다. 너는 지도를 펼쳐놓고 고심 끝에 섬 하나를 골랐다. 코사멧, 섬의 이름은 산들바람처럼 가볍고 시원했다.



바닷가의 목조 방갈로에 짐을 풀자 비로소 안식이 찾아왔다. 뜨거운 태양이 바다를 달구는 낮시간, 너는 서늘한 방갈로의 낮은 침대에 누워 필립 K. 딕을 읽었다. 노을이 지는 시간에는 이국 여인의 마사지를 받았다. 타인의 노동으로 일신의 만족을 얻는다는 불편한 마음은, 여인들의 맑은 웃음 소리에 씻겨갔다. 햇볕에 그을린 네 피부에서 피어오르는 코코넛 향을 맡으며, 너는 방갈로 근처에 있는 유일한 카페에서 애플민트와 라임이 듬뿍 들어간 모히토를 마셨다. 행복한 사람은 그 카페의 바텐더였다.

네가 처음 본 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지을 수 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는 단 한순간도 그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두 손이 끊임없이 컵을 닦고 있는 동안, 그의 입술은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다. 처음 만나서 너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맞았고, 돌아가는 너에게 잘 자라고, 내일 또 만나자고 말했다. 검고 투박한 손으로 칵테일을 만들었고, 네가 그것을 마시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았다.

그 섬에 머문 일주일 동안, 너는 그 카페를 매일 저녁 찾아가다. 노을에 휘감기며 서서히 어두워지는 바다의 풍경이 좋았고, 신선한 모히토가 좋았고, 알록달록하고 포근한 쿠션도 좋았지만, 네가 보고 싶었던 건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가 지닌 행복은 너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았고, 시샘을 느끼게 하지도 않았다. 파도처럼 일렁이며 공기를 흔들어, 너에게로 전해지는 행복이었다.

행복, 다행 幸, 복 福. 한자를 헤쳐 보면, 幸은 夭(요; 일찍 죽다)와 夨(역; 거역하다)이 합해진 것이다. 일찍 죽는 것을 면하는 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福은 음식과 술을 차리고(豊) 제사(示)를 지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늘이 내리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일까? 네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아등바등 쫓아갈 수도 없는 무엇일까? 절대적인 존재의 의지에 의해서

만 행해지는 것일까? 그리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을 행하고 결실을 마련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

요란하거나 고요하거나, 격정적이거나 심심하거나, 삶의 겉면은 둘 중 하나일지도, 그 내면은 온통 소용돌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뜨거웠다가 차가워지고, 발길이 빨라지다 느려진다. 그렇게 살아가다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불현듯 맞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행복은 지속이 아니라 찰나인데, 그것으로 충분하냐?

너는 삶이 행복을 약속하지도 않을뿐더러,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삶이란 오히려 견디는 거라고,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떠나가는 것들을 배웅하는 거라고, 한없이 기다리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행복은 지속이 아니라 찰나이기 때문에, 만족과 동시에 상처를, 기쁨과 동시에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난 이후, 너는 행복을 간직하는 법을 배웠다.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단어가 갑자기 낯설게 여겨지듯, 몸에 맞는 옷처럼 편안하던 삶이 문득 거칠어질 때, 너는 그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주문을 외듯, 그의 마지막 인사를 되뇌어본다. 잘 자. 내일 또 만나.



사진 : 황경신

태국 코사멧 섬(Ko Samet Island, Thailand)



## 포기를 모르는 그녀, 세상을 바꾸다 세인트 주디

\*영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 미국 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국선변호사로 일하던 '주디 우드'(미셸 모나한)는 어린 아들의 양육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이 있는 LA로 이주한다. 새로 들어간 로펌에서 주디는 불법 이민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돕고자 하지만, 회사의 입장은 주디와 다르다. 주디가 출근하자마자 수임료는 선불로 받아야 한다고 알려준 회사 대표 '레이'(알프리드 몰리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자진 퇴거하게 만드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주디는 레이가 넘긴 의뢰인, '아세파 아슈와리'(림 루바니)가 수용소에서 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 되어 있음을 느낀다.

아세파의 상황에 영긴 실타라는 미국 이민법 문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에서 잘리고, 아들이 사고를 치고, 판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주디는 포기하지 않고 아세파의 재판과 망명

문제에 매달린다. 영화 포스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문구처럼, 그녀는 '한 명을 위해 싸우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해 싸우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세인트 주디'(감독 손 해니시, 2020)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주디가 의뢰인들을 위해 상대해야 하는 곳은 원래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기관이었던 INS(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귀화국)였으나, 911 테러 사건 이후로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 단속국)로 바뀌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이름처럼, 그 기능도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이 이처럼 폐쇄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서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세계 각지의 사람들도 추방당해야 했다. 아세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리에 소녀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으나 그 사실을 안 탈레반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망명을 신청한 상태다. 주디는 아세파에게



그녀가 감금당하던 날 밤 당했던 끔찍한 폭력의 트라우마 및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울 용기를 북돋우며 자신이 할 일을 해 나간다. 수백 건의 사건을 담당하며 이민자를 도우면서도 수입료를 받지 못해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주디의 신세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바친다. 주디의 도움으로 아세파는 판사 앞에서 끝까지 감추려했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고백하지만, 미국 망명법에 여성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다. 아세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주디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탈레반에게 성폭행당한 사례를 들어 아세파가 정치적 이유로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낸다.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아세파는 여성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였고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기에 지금 이 법정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아세파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매체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여성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박해자들에 의해 위험한 인물로 규정되었고,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다. 그래서 아세파는 주디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아세파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학교를 만들었고, 족장의 딸이라는 신분에도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지만, 아세파도 끝까지 주디를 믿고 망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재판 전날, 주디와 아세파가 벤치에 앉아 법정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보인다. 인종도, 나이도, 경험도 다르지만, 그들은 둘 다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천신만고 끝에 주디가 아세파의 망명 허가를 받아내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천 명의 여성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주디의 변호는 한 사람을 위해 한 일이 세상을 바꾼 좋은 사례로 꼽힌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신 중 하나는 주디가 아들 알렉스의 학교로 불려가 교장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알렉스가 스테이플러를 던져 아이들을 위험하게 했으므로 정학을 내리겠다는 교장에게 주디는 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조목조목 든다. 여기서 밝혀지는 사실은 교장이 기존 학생들의 말만 믿고,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알렉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황과 느낌만으로 진위를 판단하는 편의주의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일은 과학수사가 편화된 현재에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가해자를 잘못 규정한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장실을 나온 주디는 알렉스에게 더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네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해야 해.*

*(중략)*

*네 말을 믿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뭔가를 얻으려면 싸워야해.*

*진실을 고수해야 한다고.*

*(중략)*

*엄마는 포기 안 해.”*

재판과 별개로 보이는 사건이지만 이 대사는 주디가 진실을 숨기려 했던 아세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로서 늘 스스로 되뇌는 말인지도 모른다. 이제 주디 우드의 이야기를 통해 나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관객들의 가슴에 새겨질 차례다.



# 위원회 뉴스

##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 간담회 개최



이석형 위원장은 7월 7일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언론현황과 언론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전북중재부 김상곤 중재부장, 김성중, 황선철, 김선남, 정제훈 중재위원과 유동성 전라일보 대표이사, 임환 전북도민일보 대표이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문영기 전북CBS 본부장, 송기원 전주MBC 대표이사, 한명규 JTV전주방송 대표이사, 이재강 KBS전주방송총국 총국장이 참석했다.

##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7월 31일 2019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 236건에 대한 통계분석과 주요 사례의 전문을 수록한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 PDF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담중재부 운용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조정·중재신청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중재부를 3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전담중재부가 7월 29일까지 처리한 조정사건은 68건이며, 조정성립 17건, 조정을갈음하는결정 2건, 조정불성립결정 2건, 취하 31건, 기각 3건, 계류 13건으로 나타났다.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예방교육 비대면 진행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반기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를 위한 일반인 연수와 현직 언론인들을 위한 언론인 연수, 예비 언론인 연수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8월에는 예비법조인 연수를 5일간 진행하며,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 동정

## 배진아 위원,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 토론회> 사회

배진아 위원(대전중재부,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은 7월 21일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석했다.

## 이용재 위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 참석

이용재 위원(강원중재부,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입법조사처 등 3개 단체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 이광식 위원, <소설 허균, 호피와 장미> 발간

이광식 위원(강원중재부, 강릉인문학연구소 소장)은 7월 10일 장편소설 <소설 허균, 호피와 장미>를 발간했다. 이 책은 허균의 파란만장한 삶과 사상을 다룬다.

## 판결로 훑아보는 언론분쟁의 추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도 있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분쟁을 해결할 최후의 수단이 됩니다. 또 이렇게 형성된 판례는 우리나라의 언론법제와 인격권의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에 대한 민사판결을 수집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판례들을 수록한 넉넉한 볼륨의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제법 오래되었는데요, 1990년 『국내언론관계판결집』이라는 이름으로 주요 판례를 소개하는 데서 시작했으니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2009년부터는 국내언론관계판결집에 통계적 분석을 더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의 분석 대상 판결의 수를 보시면 해마다 편차는 있을지언정 언론분쟁 사건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  
연도별 분석대상판결수



언론인, 법조인, 연구자 중에는 이미 이 책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 독자분들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인터넷 언론사가 무려 9천 개가 넘고, SNS 등 각종 디지털 매체에 나도 모르는 새 나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니, 만약을 대비해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항상 듣고 있을게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 곁에는 언제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은 물론 포털뉴스까지 언론분쟁을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